

모 두 말 씀

2017. 4. 25.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 은 보

I. 인사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입니다.

지난 2월 14일 간담회에 이어
오늘 다시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간담회에서 여러분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들을 토대로 「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리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II. 창업초기 기업 육성의 중요성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를
미국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덕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입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포드와 GM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바 있습니다.

창업(2003년) 한 지 14년이 되지 않은 기업이
100년이 넘는 미국 전통 자동차 기업의 시총을
넘어섰다는데 대해 세계가 놀랐습니다.

* 4.10일 기준 시총: 테슬라 515.4억불, GM 502.1억불

더욱 놀라운 사실은

테슬라는 2010년 6월 나스닥에 상장할 당시
2.6억 달러 규모의 적자 상태에 있었고
상장이후에도 계속 적자*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 최근 적자 규모: '14년 2.9억불, '15년 8.8억불, '16년 6.7억불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상장하여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임을
테슬라 사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10월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라면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바로 전단계 시장으로,
코넥스시장의 활성화가 곧 코스닥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수한 팜시스템(farm-system)*이

메이저리그의 성장을 이끌 듯이

*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제도로, 체계적인 등급에 따라 선수를 발굴·육성하는 제도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코스닥시장의 발전과,
나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Ⅲ. 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방안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창업-성장-회수”의 선순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우선, 클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 지정기관투자자 지분율 : (현행) 20%, 1년 이상 → (개선) 10%, 6개월 이상 보유

** 중소기업 증권 투자잔액 : (현행) 300억원 이상 → (개선) 150억원 이상

지정자문인 대상서비스 선택제를 도입하여
코넥스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지원반을 구성하여
상장, 공시 자문 등 조기정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 둘째, 코넥스시장 유동성을 확충하여
코넥스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코넥스 상장기업과 클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공모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10억원→20억원)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코넥스시장에 보다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유인을 제고*하겠습니다.

* 청약권유자(50인) 산정에서 제외하고, 코넥스 기본예탁금(1억원) 면제 대상자 범위에 포함

(3) 셋째,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을 합리화하여
‘클라우드펀딩 → 코넥스 →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신속이전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과
상장주선인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 각각 1년 → 6개월

(4) 끝으로, 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확충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별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기업설명회(IR) 개최를 확대하고,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KRP)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 개설한 이래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및 회수시장으로서
 괘목할만한 성장을 해 왔습니다.

개장이후 총 71개 상장기업이
3,5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유상증자 등)에 성공하였고,
총 26개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에
성공하였습니다.

* ('13) 136 → ('14) 679 → ('15) 903 → ('16) 1,321 → ('17.3말) 463억원

이제는 코넥스시장이
상위 시장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장으로서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금번 제도개선 방안은
이러한 측면에서
코넥스시장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서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